



즉시 배포용: 2024년 1월 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4년 시정연설 세 번째 제안안의 내용인 산모 및 영아 사망 위기에 대한 대응 공개

전국 최초로 유급 육아 휴직을 주 전역에서 실시, 연구에 따르면 출산 담당 의사 지정이 산모와 영아의 건강과 연관

새로운 법안에 따라 조산사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증거 기반 서비스에 대한 명령 실시

필수 계획과 기타 의료 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뉴욕 주민이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정책

데이터 연구 및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 산모를 위험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제왕절개를 제한

988 핫라인을 통해 산모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 자원을 배포하고 TEACH 프로젝트 확대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영아 사망 증후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가족에게 이동형 아기 침대를 지원

CDC 통계에 따르면 영아 사망이 20년 만에 최초로 증가

Kathy Hochul 주지사는 2024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세 번째 제안안으로 뉴욕의 산모 및 영아 사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정책 6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CDC 통계에 따르면 영아 사망이 증가했는데 이는 20년 만에 최초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양질의 임출산 관련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산모와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며 산후 우울증에 대응하고 영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과 법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모 및 영아 사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자녀 여성으로 최초로 뉴욕의 주지사가 된 저에게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부모와 아동을 지원하는 선제적 정책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산모와 영아 사망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영아가 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받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전역에서 기존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가족들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 전역으로 유급 육아 휴직 적용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PFL\)](#) 정책을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임출산 진료를 받기 위한 40 시간의 유급 휴가가 포함되어 뉴욕은 전국 최초로 산후 돌봄을 주 전역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후 진료는 산모와 유아의 건강 상태 개선과 높은 연관성을 보입니다. 산모가 정기적으로 산후 검진을 받을 경우 산후 사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영아가 건강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현행 뉴욕의 유급 가족 휴가법에 따라 단기 장애 관련 혜택은 출산 전 4주까지는 적용될 수 없으며 7일간의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산후 진료를 PFL에 따른 별도 적용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는 가정 생활을 희생하거나 생후 자녀와의 유대를 쌓는 기간인 유급 휴가를 포기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Hochul 주지사는 [주 전역의 근로자 80 퍼센트 이상이 12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아동 보건 플러스(Child Health Plus) 가입자가 산후 [최대 일 년까지 산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산을 한 부모를 지원하고 산모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최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한 조산사 서비스 이용 접근성 확대

Hochul 주지사는 집행 예산(Executive Budget)에서 보건 커미셔너에게 "시행령"을 통해 의사 추천 없이 뉴욕 주민들이 조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산사는 출산 경험 이전, 도중 및 이후에 신체적,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는 출산 전문가입니다. 조산사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통해 뉴욕은 임신 중인 사람들, 특히 메디케이드에 의료 보험을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조산사 이용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작년 예산에서 Hochul 주지사는 뉴욕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조산사 보장을 확보했으며, 해당 내용은 금주인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최초의 조산사 디렉토리](#)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Essential Plan 및 Qualified Health Plans에서 공동 부담 및 기타 자기 부담금 철폐

산모 및 영아의 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Essential Plan 또는 Qualified Health Plans에 가입한 모든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임출산 관련 공동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 모두를 없앨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Essential Plan의 조산사 관련 보장을 확대합니다.

의료 보장 혜택을 받는 뉴욕 주민에게도 공동 부담금과 기타 자기 부담금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입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700만 명이 공동 부담금 전면 면제 또는 소액 지불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Essential Plan** 및 **Qualified Health Plans** 가입자 약 130만 명은 정기 임출산 관련 진료 시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제왕절개를 피하기 위한 관리 감독 매커니즘 신설

제왕절개는 산모 또는 영아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반드시 최선의 방법이 아닐 때도 이러한 수술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제왕절개가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경우에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ochul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불필요한 제왕절개 시술률을 낮추기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관리 감독 체계에는 임상적으로 최선이 아닐 때 제왕절개를 시술하는 의사를 가려내는 조치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보건부는 제왕절개를 불필요하게 많이 시술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제왕절개를 시술하는 병원에 대한 새로운 메디케어 인센티브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임산부 정신 보건 및 산후 우울증 대책

CDC 데이터에 따르면, 임출산과 관련한 사망자 다섯 명 중 한 명(23 퍼센트)은 정신 보건 때문이며, 최근 출산한 여성 여덟 명 중 약 한 명은 산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임산부 정신 건강은 뉴욕 산모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뉴욕은 **988 Suicide and Crisis Lifeline**의 상담사들에게 임산부 정신 보건, 산후 우울증, 불안증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특별 훈련을 통해 상담사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산모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과 돌봄,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Hochul 주지사는 과거 **National Suicide Prevention**를 **[988 Suicide and Crisis Lifeline](#)**라는 이름으로 주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Project TEACH**의 **Maternal Mental Health** 이니셔티브를 확대해 테라피스트, 수유 컨설턴트, WIC 스태프, 재택 간호사, 기타 최전선 인력 등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전문가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특별 훈련을 받고 전문 상담을 활용해 임신 중 또는 출산한 뉴욕 주민들에게 정신 보건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일반 정신과 의사, 주치의, 전문 간호사, 산부인과 의사 등 정신 보건 관련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존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영아 돌연사 위험 대책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잠을 자다가 죽는 것은 아동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주정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주 약 2명의 영아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잠을 자다가 사망하며, 그 결과 **[매년 120명 이상의](#)**

영아가 사망합니다. 이는 종종 안전성이 입증된 아기 침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저소득 가정에서 특히 발생하기 쉽습니다.

안전한 수면 환경은 수면 중 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Hochul 주지사는 무료로 빈곤층 뉴욕 주민에게 이동식 아기 침대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기 침대는 사회보장서비스부 지역 카운티 사무소 또는 기타 지역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병원의 전문 의료진은 아기 침대가 필요하다고 확인될 경우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임산부 보건 어젠다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우선과제 설정으로 임산부 정신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제약절개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영아 돌연사(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위험 완화, 유급 산후 실시, 조산사 서비스 확대, 메디케어 가입자의 산모 및 영아 진료비 공동 부담금 및 자기 부담금 철폐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은 물론 그 후에도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OCFS 커미셔너 대행인 **Suzanne Miles-Gustav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가족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 패키지를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양육자가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산전 및 산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도 더욱 잘 자랍니다. 뉴욕은 다시 한번 정신 보건의 선구자로서 위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생명을 구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생과 사를 넘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 보건에 큰 문제를 가져오거나 원래 있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별 훈련을 실시하고 **988 Suicide and Crisis Lifeline** 상담사들이 임산부 정신 보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산전과 산후 모두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모 사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 전역의 임산부를 돕기 위해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Rodneyse Bichotte Hermely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아 및 산모 사망 위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지사는 여섯 개의 정책을 통해 임출산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산모 위기를 헤쳐나온 생존자로서 저는 수십년 만에 최초로 증가한 영아 사망 문제 대응에서 **Kathy Hochul** 주지사와의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프리카계 및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통해 모든 산모와 영아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drienne E. Adams 뉴욕 시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임산부 건강 문제에서 인종 불평등이 드러납니다. 이는 정부 모든 수준에서 이번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뉴욕시 시의회는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조산사 서비스를 비롯한 임산부 필수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11개 법안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저는 임산부, 산모, 영아의 안전을 지키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에 계속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감명받았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